

1945년 이전 신문 자료의 온라인 활용 방법

송 지 형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 목 차 >

1. 머리말
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945년 이전 신문 자료
3. 온라인 상에서 1945년 이전 신문 자료의 열람
4. 맺음말

1. 머리말

신문은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사에 관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지식·오락·광고 등을 전달하는 정기간행물”이라 정의한다.¹⁾ 세계신문협회(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에 따르면 최초의 근대적인 형태의 신문은 1605년 독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요한 카롤루스(Johann Carolus)가 발행한 *Relation: aller Fürnemmen und gedenckwürdigen Historien*(특별하고 기록할만한 소식들의 모음집)이라 한다.²⁾ 이후 19세기 초에 이르면서 목재 펄프가 종이의 원료로 사용되고, 잉크가 개량되었으며, 증기기관을 활용한 양면 인쇄가 가능한 두루마리형 윤전기(web press)가 등장하면서 ‘페니 프레스’(penny press)라는 소위 대중지가 등장하기 시작

1) <http://100.naver.com/100.nhn?docid=101697> (두산백과사전).

2) <http://www.wan-press.org/article6476.html>. 신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B. C. 59년 시저가 돌이나 금속에 새겨 광장에 게시했던 ‘Acta Diurna’(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일상사’ 정도에 해당한다)라든가 오늘날의 관보에 해당하는 713년 당의 『개원잡보』(開元雜報)도 신문의 기원이 될 수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Newspaper>.

한다.³⁾ 한국은 1883년 통리아문 박문국에서 순한문으로 인쇄하여 펴낸 『한성순보』(漢城旬報)가 최초의 근대 신문이며, 1896년 독립협회에서 창간한 『독립신문』이 민간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⁴⁾



[그림 1] 1609년 발행 *Relation aller Fürnemmen und gedenckwürdigen Historien*의 표지⁵⁾

이후, 신문은 오늘날까지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대중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데 기여해왔다. 한국에서는 ‘신문에서 보았는데’라는 말이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임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신문의 영향력이란 상당한 것이었다.⁶⁾ 물론 오늘날 신문구독률의 감소에서 드러나듯이 포털이나 블로그 저널리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신문이 담당해 온 정보전달자로서의 독점적인 위상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지만,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원래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문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문기사는 항상 오보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실을

3) 1883년 벤자민 데이(Benjamin Day)가 발행한 *New York Sun*이 한 부당 1페니에 발행한 최초의 페니 프레스라고 한다. <http://library.thinkquest.org/18764/print/history.html>.

4) 『한성순보』와 전근대적 신문인 『조보』(朝報)와의 비교를 통해 『한성순보』를 ‘과도기적인 근대신문’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박정규, 「漢城旬報와 朝報에 관한 연구」, 『신문학보』 16호, 서울: 한국신문학회, 1983, pp. 23~31.

5) 하이델베르크 대학 도서관(Universitätsbibliothek Heidelberg)에서 1609년 발행된 *Relation*의 원문을 디지털화했으며, 현재 PDF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http://diglit.ub.uni-heidelberg.de/diglit/relation1609>.

6) 송건호는 일본점령기 동안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다른 식민지 민족운동에서는 정치활동을 해야 할 인사들이 한국에서는 민간언론기관에 모여들면서 민족운동에서 언론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 10 - 창씨개명에서 8·15 해방까지』,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8, pp. 43~44.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가능하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신문을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문기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초해 작성되며 당시 발행되었던 다양한 매체들과의 교차 검색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사실 여부의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문은 오늘날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은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대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대중에게 알리는 소통의 장이었으며, 오늘날에는 신문에 실린 광고까지도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사(正史)가 편찬되어 오늘날 역사 연구에 1차 사료의 역할을 담당해왔다면, 근·현대 사회에서는 신문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대안 매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루에 발행되는 신문의 양은 엄청나다. 세계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2007년 *World Press Trends*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발행되는 신문(무가지 제외)은 11,926종, 약 5억3천2백만부에 달한다.⁷⁾ 한편 한국언론재단에서 발행하는 『한국신문방송연감』에 따르면 2008년 2월 14일 현재 한국에서 하루에 발행되는 일간 신문의 수만 총 284종(일반일간신문 181종, 특수일간신문 93종, 외국어일간신문 10종)이나 된다.⁸⁾ 한국에서 오늘날 유력 일간지의 발행부수가 100만부 안팎이고, 일반 중앙지의 경우도 10만부 정도는 유지한다.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1940년 8월 강제폐간 당하기 직전 『조선일보』가 약 6만3천부, 『동아일보』가 약 5만5천부를 발행했다고 하니 해방 이전에도 신문의 보급 정도는 상당했다고 할 수 있다.⁹⁾

그러나 오늘날 개인이 신문을 보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문은 부피가 크고 지질이 열악해 일반 가정에서 오래 보관하기가 곤란하고 발행된 신문은 대부분 바로 재활용되기 때문에,¹⁰⁾ 일반도서관에 비해 기대수명이 그다지 높지 않다. 오늘날에는 오프라인 신문도 온라인으로 동시에 뉴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지난 신문은 판형 그대로 PDF 파일로 제작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신문을 구독하거나 도서관에서 보관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문이 온라인으로 기사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년 안팎의 일이며, 그 이전에 발행된 신문은 신문사에서 자체적인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하지 않는 한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판형의 신문을 이용하거나 신문사에서 발행한 마이크로필름이나 영인본을 직접 열람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신문을 보관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신문은 출판 비용의 절감을 위해 가장 값싸고 지질이 열악한 인쇄용지를 사용한다.¹¹⁾ 신문용지는 보관을 목적

7) <http://www.wan-press.org/article17377.html>.

8) 한국언론재단 편, 『2008 한국신문방송연감』,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8, p. 648.

9) 최준, 『한국신문사』, 서울: 일조각, 1990, p. 287.

10) 신문용지의 재활용율은 폐지의 가격에 따라 다른데 미국산림제지협회(The American Forest & Paper Association)는 2006년 북미에서 생산된 신문용지의 72%가 재활용(수출 포함)되었다고 추정한다. <http://en.wikipedia.org/wiki/Newsprint>.

으로 생산된 종이가 아니므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열화(劣化)될 수밖에 없는데, 역설적으로 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는 가장 이용률이 높은 자료이며 열람 또한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관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림 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서고내 신문자료



[그림 3] 서울대학교 소장 동아일보. 열람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화가 진행됨.

신문 자료의 보존을 위해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우선 열람 과정에서 신문의 열화를 막기 위해 신문을 한 장 한 장 보존용 필름에 담아 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신문 자료를 보관하는 데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신문의 구독비용보다 보관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도서관에서는 실행이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신문의 보존을 위해 보존용 1부를 따로 구독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도서관의 재정이나 장서량,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했을 때 1종의 신문을 2부 구독하기 보다는 구독신문의 종수를 늘려나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신문 자료의 보존을 위해 대안 매체의 제작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안 매체는 마이크로필름 제작이나 디지털화가 있다. 이 중 디지털화는 마이크로필름에 비해 제작비용이 높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필요로 하고 웹을 통해 공개할 경우 신문사와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필름 제작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겠지만, 검색과 출력의 번거로움 때문에 국내에서는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아울러 도서관에서도 디지털화만을 최우선하다 보니 그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해 보존용 매체를 제작하지 않은 채 원본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금이라도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11) 오늘날 인쇄용지는 표면에 코팅 여부에 따라 도공지(塗工紙)와 비도공지로 나뉘는데, 비도공지 중 화학펄프를 40% 미만으로 사용한 종이(하급지)를 신문용지로 사용한다. 톨로 생산된 신문용지를 자른 것을 ‘갱지’(한국산업규격으로 정한 3급 인쇄용지)라고 한다.

최근에 발행된 신문 자료의 보관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문의 범위는 현재 고문헌자료실에 소장중인 1945년 이전 국내에서 간행된 신문 자료로 제한하고자 한다. 1945년 이전 신문은 현재 국내에 소장기관이 많지 않지만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상당 부분 완료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안 매체를 제작하기에 앞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은 웹상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대체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본 자료를 선호하는데, 이는 실제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욕구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이용자들이 원문 정보 이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원문 자료는 실물 자료에 비해 여전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른다.) 이 글은 외부에서 구축한 원문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원본 대신 대체본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는 자료의 보존에 지출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현재의 도서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소장중인 원본 자료의 상태를 보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945년 이전 신문 자료

1945년 10월 17일 미군정 법령 제16호에 따라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이 ‘경성대학’으로 바뀌고 동시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은 경성대학에 귀속되었다.¹²⁾ 이후 서울대학교는 해방 이전에 수집된 자료를 구장서, 구관도서 등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해왔으며, 1992년 규장각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분리되면서 규장각에 장기 대출된 한국학 관련 귀중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중앙도서관 내에 고문헌자료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¹³⁾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수집했던 자료들은 이후 재분류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예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자료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는 축차간행물(逐次刊行物, 오늘날 연속간행물)에는 ‘Y’라는 별치기호를 부여했는데 그 중에서 동양서 신문 자료는 ‘YY’, 서양서 신문 자료는 ‘YZ’와 ‘ZZ’라는 별치기호를 부여했다.¹⁴⁾

12) 이 후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에 따라 ‘경성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로 바뀌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2006, p. 123.

13) 한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보관된 자료들은 시기적으로 1945년 이전에 수집된 자료이지만, 초창기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도서 분류에 여전히 경성제국대학의 방식을 답습하다보니(Ibid., p. 125), 이 과정에서 관리상의 실수로 인해 1945년 이후 자료의 일부가 현재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

14) 서양서 신문 자료 중 YZ는 합철(合綴)된 자료, ZZ는 합철되지 않은 자료인데, 현재 ZZ로 분류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표 1]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 1945년 이전 신문

언 어	신 문 명		
한국어(8종) ¹⁵⁾ (한문 전용, 국·한문 혼용 포함)	大韓民報, 大韓每日申報, 독립신문, 東亞日報, 帝國新聞, 漢城旬報, 漢城周報, 皇城新聞		
중국어(5종)	順天時報, 時報, 新民報, 申報, 益世報		
일본어(24종)	발 행 지	일 본	内外新報, 大阪毎日新聞, 大阪朝日新聞, 東京日日新聞, 東京朝日新聞, 時事新報, 有喜世新聞(開花新聞), 中外商業新報, 中外新聞, 光, 郵便報知新聞, 帝國大學新聞, 評論新聞, 平民新聞, もしほ草
		조 선	京城新報, 京城日報, 釜山日報, 朝鮮商工新聞
		만 주	滿洲日報, 滿洲日日新聞, 遼東新報
		대 만	臺灣日日新報
영어(23종)	발 행 지	미 국	New York evening post, New York post, The daily worker, The New York times, The United States daily, The Seattle star, The Journal of commerce and commercial bulletin
		영 국	Manchester guardian weekly, The daily herald, The London and China express, The Times
		러시아	Moscow daily news
		일 본	The Japan advertiser, The Japan weekly gazette, The Japan weekly mail, The Japan times & mail, The Japan times and advertiser
		중 국	Peking & Tientsin times, The North-China daily news,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Canton register, The weekly China tribune
		조 선	The Seoul press
프랑스어(7종)		프랑스	La Tribune des nations, La Vie ouvrière, Le figaro, L'humanité, Le Temps, Mil neuf cent trente trois
		기 타	Ankara(터키)
독일어(21종)	발 행 지	독 일	Allgemeine Zeitung, Berliner Morgenpost, Berliner Tageblatt und Handels-Zeitung, Die Rote Fahne, Frankfurter Zeitung und Handelsblatt, Haus. Hof. Garten, Volkischer Beobachter, Vossische Zeitung, Vorwärts. Berliner Volksblatt, Welt-Spiegel, Deutsche allgemeine Zeitung, Frauen-Spiegel, Illustrierte Film-Zeitung, Jede Woche Musik, Koniglich privilegierte Berlinische Zeitung von Staats- und gelehrten Sachen, Vossische Zeitung, Moden-Spiegel, Neue rheinische Zeitung, Technische Rundschau, Ulk
		기 타	Neue freie Presse(오스트리아), Moskauer Rundschau(러시아)
스페인어(2종)	El sol(스페인), La prensa(아르헨티나)		
이탈리아어(1종)	Il popolo d'Italia		
에스페란토어(1종)	Heroldo de Esperanto		

15) 『한성순보』는 순한문으로 쓰였기에 한국어 신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어로 분류할 경우 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편의상 한국어로 분류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로 분류해 관리되어 온 자료 가운데 현재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중인 1945년 이전 발행 신문 자료는 총 92종이며, 구체적인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날과 같은 일간지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에는 신문과 다른 정기 간행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곤란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주간지나 순간지(旬刊紙)라 하더라도 대체로 일반적인 신문의 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신문 자료로 분류해서 관리했던 것으로 유추한다. 다만, *Annual Index of The United States Daily*는 당시에는 신문 자료로 분류해서 관리하였지만 신문으로 보기에는 곤란해서 YY라는 청구기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표 1>에서는 제외했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는 ‘신문절발’(新聞切拔) 자료를 상당수 소장하고 있다. ‘절발’이란 일본어의 ‘切り抜き’, 즉 스크랩을 의미하며, 고문헌자료실에 소장중인 『신문절발』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부속정리실에서 1928년부터 1940년 사이에 수집한 총 458책 약 14,000여 건의 신문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조선관계(1928~1940년, 248책), 만주관계(1932~1940년, 99책), 국제관계(1932~1940년, 60책), 정치관계(1932~1940년, 37책), 서평(1934~1940년, 5책), 학예부대학(學藝附大學, 1935~1940년, 4책), 중국(支那)관계(1938~1940년, 5책)의 일곱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¹⁶⁾ 발췌한 신문의 구체적인 이름을 확인하기 곤란한 자료도 일부 있으나(767건) 대체로 『동아일보』, 『조선민보』(朝鮮民報), 『조선신문』(朝鮮新聞), 『경성일보』(京城日報), 『서선일보』(西鮮日報), 『남선일보』(南鮮日報), 『군산일보』(群山日報), 『목포신보』(木浦新報), 『부산일보』(釜山日報), 『평양매일신문』(平壤毎日新聞),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 『대판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 『제국대학신문』(帝國大學新聞), 『만주일보』(滿洲日報), 『만주신보』(滿洲新報), 『만주일일신문』(滿洲日日新聞), 『대련신문』(大連新聞), 『봉천만주일보』(奉天滿洲日報), 『신경일일신문』(新京日日新聞), 『하얼빈일일신문』(哈爾濱日日新聞), 『대만일일신보』(臺灣日日新報) 등을 주로 스크랩했으며, 기사가 게재되었던 일자도 스크랩한 기사에 고무인으로 날인이 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신문절발 자료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국역사정보시스템’(www.koreanhistory.or.kr)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http://sdl.snu.ac.kr)에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선근대신문’이라는 항목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절발 자료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문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대외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외국 신문을 스크랩한 자료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선근대신문’이라는 콘텐츠의 제목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① 조선에서 발행되었던 신문기사, 혹은 ② 조선과 관련된 신문기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¹⁷⁾ 원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경성제

16) 경성제국대학 시절 도서관 장서 목록에는 가필의 흔적이 보이긴 하나 조선관계 223책, 만주관계 89책, 국제관계 56책, 정치관계37책, 서평 3책, 학예부대학 2책, 중국관계 2책으로 기록되어 있어 분야별로 책 수가 상이한 것이 분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7) ‘조선근대신문’에 관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개글 또한 “1945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신문들로 구성되어

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부속정리실 수집 신문절발 자료'와 같은 제목으로 변경하거나 국사편찬위원회처럼 단순히 '신문스크랩자료'라는 제목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이용자들이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4]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조선근대신문 DB



[그림 5] 신문절발 자료 - 경성일보 1934년
3월 25일자 경성제국대학 졸업식 기사

3. 온라인 상에서 1945년 이전 신문 자료의 열람

해방 이전에 발행된 신문은 현재 여러 기관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문 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언론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이 있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이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도 구축해 두었다. 이 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 이상에서 동일 신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경우에는 표에 회색 블록으로 표시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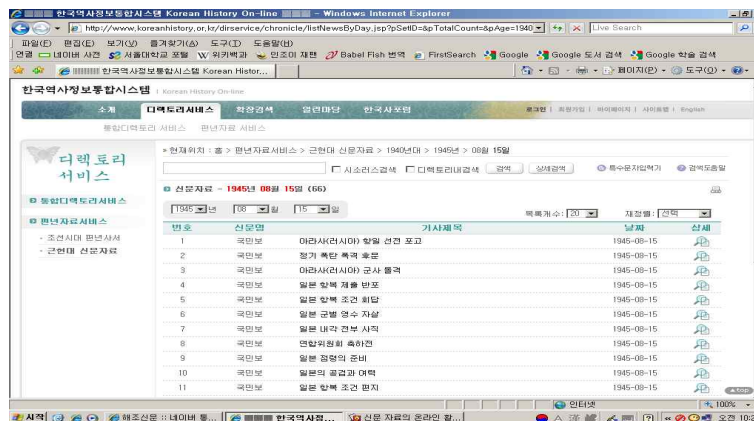
있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오류이다. http://library.snu.ac.kr/StaticView.jsp?page=D_Contents.

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역사자료의 기본 서지정보와 소장처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검색한 자료의 본문 정보는 웹링크를 통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계된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연계만을 제공할 뿐이며, 직접적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는 편년(編年) 자료만을 따로 모아 날짜별로 검색할 수 있는 ‘편년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편년자료 서비스’ 안에는 ‘근현대 신문자료’만을 별도로 검색이 가능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일에 발행된 모든 신문 자료의 기사 제목과 상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6]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편년자료서비스에서 1940년대 근현대 신문자료 검색 화면



[그림 7] 1945년 8월 15일 신문기사 검색 결과

2)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신문 데이터베이스(<http://www.dlibrary.go.kr/WONMUN/Index.jsp>)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이전에 발행된 신문' 31종에 대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체 전자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은 '1945년 이전'이지만 실제로는 1945년 이후 발행된 신문 자료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2009년 1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문 자료는 <표 2>와 같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기사별 검색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신문 자료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일부 빠진 호도 존재한다. 원본 신문을 확인할 수 없어 당시 조판·인쇄기술의 한계에서인지 구축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활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뭉개져있어 온라인상에서 열람이 불가능한 신문도 일부 존재한다.

[표 2]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1945년 이전 신문

신문명(발행시기순)	원문 서비스 제공 기간	발행처 ¹⁸⁾	발행주기	언어	비고
제국신문	1898.8.10 ~ 1899.5.31, 1899.10.12 ~ 1901.8.27, 1902.8.11 ~ 1902.12.29	서울	일간	국문	
황성신문	1898.9.5 ~ 1905.11.17 1906.2.13 ~ 1910.9.14	서울	일간	국한문	
대한매일신보	1904.8.4 ~ 1905.3.9, 1905.8.11 ~ 1910.8.28	서울	일간	국한문	
만세보	1906.6.17 ~ 1907.7.22	서울	일간	국한문	
공립신보	1907.4.26 ~ 1909.1.27	샌프란시스코	주간	국문	
신한민보	1909.2.10 ~ 1947.12.25, 1949.1.6 ~ 1950.12.28	로스앤젤레스	주간	국문, 영문	
경남일보 ¹⁹⁾	1909.11.5 ~ 1912.8.9	진주	(격)일간	국한문	
매일신보	1910.8.30 ~ 1945.8.16	서울	일간	국(한)문	
시대일보	1924.3.31 ~ 1926.7.31	서울	일간	국한문	
중외일보	1926.11.30 ~ 1931.6.19	서울	일간	국한문	
조선중앙일보	1933.3.7 ~ 1936.9.4	서울	일간	국한문	
고려시보	1933.5.1 ~ 1941.4.16	개성	월2회	국한문	결호 많음
만선일보	1939.12.1 ~ 1940.9.30	창춘(長春)	일간	국한문	

18) 이하 발행처의 지명은 오늘날의 지명으로 표기했음.

19)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경남일보』로 검색되지 않으며, 『해양연구소보』(海洋研究所報)라는 잘못된 제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1945년 이후 신문

신문명(가나다순)	원문 서비스 제공 기간	발행처	발행주기	언어	비고
강원일보	1947.10.8 ~ 1949.6.30	춘천	일간	국한문	
광명일보	1947.5.1 ~ 1947.8.14	서울	일간	국한문	
농민주보	1945.12.29 ~ 1947.12.30	-	주간	국문	
대동신문	1945.11.25 ~ 1948.12.31	서울	일간	국한문	
대중일보	1946.6.2 ~ 1948.6.27, 1949.9.8 ~ 1950.6.20	인천	일간	국문	
동광신문	1947.2.18 ~ 1948.12.31	광주	일간	국한문	
동방신문	1950.1.8 ~ 1950.6.9	강릉	일·주간	국한문	
무역신문	1947.9.8 ~ 1948.9.22	서울	주 1~2회	국한문	실제 신문의 제호는 '신문역'임.
문화일보	1947.3.11 ~ 1947.9.24	서울	일간	국한문	
민보	1947.2.15 ~ 1947.6.15	서울	일간	국한문	
민주일보	1947.1.1 ~ 1947.7.26, 1948.5.5 ~ 1948.12.11	서울	일간	국한문	
민주중보	1945.9.20 ~ 1946.12.31	부산	일간	국한문	
상업일보	1947.10, 1948.11~12	서울	일·순간	국한문	
예술통신	1946.11.5 ~ 1947.3.2	서울	일간	국한문	
우리신문	1947.5.17 ~ 1948.5.25	서울	일간	국한문	
전국노동자신문	1945.11.1 ~ 1947.8.8	서울	(격)주간	국문	
조선중앙일보	1947.7.1 ~ 1947.12.31	서울	일간	국한문	
중외신보	1946.4.19 ~ 1947.6.27	서울	일간	국한문	
현대일보	1946.3.26 ~ 1946.9.6, 1947.1.29 ~ 1947.6.10	서울	일간	국한문	

3)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가온 고신문 데이터베이스²⁰⁾(<http://www.kinds.or.kr/>)

한국언론재단은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이렇게 5개 신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서비스 중이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9개 신문의 디렉토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²¹⁾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며, 『황성신문』, 『협성회회보』, 『매일신문』은 기사의 본문 검색도 가능하다.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미디어 가온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9년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의 날짜별 신문 지면을 PDF 파일로 볼 수 있는 ‘90년대 이전 신문’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표 4] 한국언론재단에서 서비스하는 고신문 자료

신문명	원문 서비스 제공 기간	발행처	발행주기	언어	비고
독립신문	1896.4.7 ~ 1899.12.4	서울	(격)일간	국문, 영문	
협성회회보	1898.1.1 ~ 1898.4.2	서울	주간	국문	
매일신문	1898.4.9 ~ 1899.4.3	서울	일간	국문	
황성신문	1898.9.5 ~ 1910.9.14	서울	일간	국한문	1910.8.28 이후 제호는 ‘한성신문’임
대한매일신보	1904.8.4 ~ 1905.3.9, 1907.5.23 ~ 1910.8.28	서울	일간	국문	

20) 미디어 관련 전문자료 통합검색 서비스.

21) 서비스 가능한 일자를 선택하고 지면 전체를 PDF로 열람하는 방식.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별도로 한국사 관련 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속간행물 자료는 ‘한국근현대잡지자료’와 ‘한국근현대신문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현재 ‘한국근현대신문자료’에서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 자료는 <표 5>와 같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기사별 검색이 가능하다. 『동아일보』는 『동아일보색인』에서, 나머지 신문은 이미 간행된 영인본 자료를 대상으로 색인어를 추출해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신문 스크랩 자료’는 앞에서 소개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신문절발’ 자료이다.

[표 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신문자료

신문명	원문 서비스 제공 기간	발행처	발행주기	언어	비고
동아일보	1920.4.1 ~ 1940.10.11, 1945.1.15 ~ 1962.12.31	서울	일간	국한문	
공립신보	1905.11.20 ~ 1909.1.27	샌프란시스코	(격)주간	국문	
중앙일보	1931.10.14 ~ 1933.3.6	서울	일간	국한문	
조선중앙일보	1933.3.7 ~ 1936.9.4	서울	일간	국한문	
중외일보	1926.11.15 ~ 1931.6.19	서울	일간	국한문	
시대일보	1924.4.1 ~ 1926.8.31	서울	일간	국한문	
신한민보	1909.2.10 ~ 1924.12.14	로스앤젤레스	주간	국문, 영문	
신문스크랩자료	1928.4.17 ~ 1940.12.31	-	-	-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독립기념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1999년부터 한국독립운동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으며, 2007년에는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을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²⁾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문은 『국민보』 등 15종이다. 검색하고자 하는 신문의 발행일자를 클릭하면 주요 기사의 원문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일부 신문은 ‘기사 정보’에서 텍스트 파일도 함께 제공한다. 주로 해외에서 발행된 신문을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결호(缺號)가 많다.

22) 연합뉴스, 2006년 12월 22일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061222004400353.

[표 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에서 원문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자료

신문명	원문 서비스 제공 기간	발행처	발행주기	언어	비고
국민보	1913.8.13 ~ 1914.8.1, 1936.12.30 ~ 1938.12.30, 1942.1.21 ~ 1963.12.25	하와이	주간 (1913~1914 주 2회)	국문	기사정보 제공
단산시보	1925.5.23 ~ 1925.10.14	하와이	주간	국문	기사정보 제공
대공보	1938.12.19 ~ 1946.3.13	충청	일간	중문	한국독립운동 관련 기사만 발췌해서 제공
대한매일신보	1907.5.23 ~ 1910.8.28	서울	일간	-	시스템 문제로 현재 원문 접근불가
대한민국임시 정부 공보 ²³⁾	1919.9.3 ~ 1944.9.10	-	부정기	국한문	
대한민보	1909.8.1 ~ 1910.8.31	서울	일간		시스템 문제로 현재 원문 접근불가
독립신문 ²⁴⁾	1919.8.21 ~ 1926.9.3, 1943.6.1 ~ 1945.7.20	상하이(上海), 충청	부정기	국한문, 중문	1943년 이후 중문판 기사정보 제공
북미시보	1944.4.15 ~ 1946.12.15	워싱턴	부정기	국문	기사정보 제공
선봉	1914.11.24 ~ 1914.12.22, 1924.7.1 ~ 1937.9.12	블라디보스토크	격일간	국문	
신한국보	1909.2.12 ~ 1911.1.3	하와이	주간	국문	기사정보 제공
태평양주보	1930.4.29, 1937.12.31, 1938.8.27 ~ 1941.10.20, 1947.4.27	하와이	주간	국문	
한민	1936.3.15 ~ 1937.8.7, 1938.3.1 ~ 1938.4.3	상하이, 한커우(漢口)	부정기	국한문	기사정보 제공
황성신문	1898.9.5 ~ 1905.11.17, 1906.2.13 ~ 1910.9.14	서울	일간	국한문	
권업신문	1912.5.26 ~ 1914.8.29	블라디보스토크	주간	국문	기사정보 제공
해조신문 (흥 도신문)	1908.2.26 ~ 1908.5.26	블라디보스토크	일간	국문	기사정보 제공

23) 원문의 상당 부분은 당시의 원본이 아닌 2004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펴낸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를 디지털화했다.

24) 중국에서 발행된 『독립신문』은 상해임시정부의 기관지로 대한제국기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독립신문』과는 별개의 신문임.

6) 조선일보 아카이브(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조선일보』는 19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60만여 건의 기사에 대한 원문 정보를 구축해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 이용자는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날짜별 신문보기’에서 해당 일자를 클릭하면 그 날 신문지면을 PDF로 이용할 수 있다. 기자나 기고자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1990년 이후 신문은 전문(fulltext) 검색이 가능하지만, 1989년 이전 기사는 제목과 색인(주제어, 기고자, 날짜) 검색만을 제공한다.

7) 동아일보 아카이브(<http://www.donga.com/pdf/archive/>)

『동아일보』 역시 1920년 이후 기사에 대한 원문 정보를 구축해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기관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행정보를 확인하고 ‘날짜별 신문보기’에서 해당 일자를 클릭하면 신문지면을 PDF로 이용할 수 있다. 1999년 이후는 전문 검색을, 1920~1962년은 색인 검색을 지원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아카이브는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나 동아일보 아카이브는 기관 사정으로 현재 구독을 중단한 상황이다.

8) 동방미디어 Korea A2Z(<http://www.koreaa2z.com/>)

한국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동방미디어의 KoreaA2Z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매일신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순한문으로 작성한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기사별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압수한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발행한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에 실린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의 기사 1,061건의 번역문도 서비스하고 있다.

[표 7] 동방미디어 A2Z에서 제공하는 신문 자료

신문명	원문 서비스 제공 기간	발행처	발행주기	언어	비고
한성순보	1883.10.31 ~ 1884.10.9	서울	순간	한문	
한성주보	1886.1.25 ~ 1887.6.20	서울	주간	한문	
매일신보	1910.8.30 ~ 1920.12.30	서울	일간	국(한)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1920 ~ 1936	-	-	-	

9) 한국학술정보 PDF 서비스(<http://www.kstudy.com/>)

한국학술정보(주)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와 당시 한국 내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인 『경성신보』 등을 PDF 파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학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구매하지 않고 있다.

[표 8]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는 신문 자료

신문명	원문 서비스 제공 기간	발행처	발행주기	언어	비고
경성일보	1907.6.23 ~ 1912.2.18 (결호 많음), 1915.9.3 ~ 1945.12.11	서울	일간	일문	
경성신보	1905.1.15 ~ 1905.4.19, 1907.11.3 ~ 1912.2.29	서울	일간	일문	
조선일보*	1905.1.15 ~ 1905.4.19		일간		
경성일일신문*	1920.8.1 ~ 1920.10.31		일간		
경성약보*	1908.3.3 ~ 1908.6.3		월간		

(*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어 발행주기와 제공 기간만을 기재했음.)

10)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http://dna.naver.com>)

NHN 검색 포털 네이버는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Digital News Archive)를 구축해 2009년 4월 30일 공개했다.²⁵⁾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는 과거 신문을 디지털화해 과거의 종이 신문 그대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볼 수 있게 한 서비스로 12월 현재 1970년부터 1985년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2010년까지 1920년 4월 1일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²⁶⁾ 네이버 서비스의 장점은 전문(full text) 검색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가 트래픽을 끌어올릴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아닌데다 예상보다 이용률이 저조해,²⁷⁾ 향후 사업이 확장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25) NHN 보도자료, 2009년 4월 2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cid=008&aid=000204835&>

26) 동아일보, 2009년 8월 19일,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8190041>.

27) 이아뉴스24, 2009년 7월 13일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28511&g_menu=020300.

4. 맺음말

신문 자료는 현재 단행본이나 일반 연속간행물 자료에 비해 훼손이 심각하므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 매체의 제작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고문헌자료실에 소장중인 신문 자료의 대안 매체 제작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고문헌자료실에 소장중인 신문 자료를 소개하고, 국내 여러 기관의 1945년 이전에 발행된 신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사실상 1945년 이전 국내에서 발행된 신문 자료는 이미 대부분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했기 때문에 만일 후발주자인 서울대학교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중복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정 기관에서 구축한 원문 데이터베이스는 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만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서 소개한 신문의 '원문 서비스 제공 기간' 역시 상당 기간 결호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원문이 구축된 첫 번째 호와 마지막 호만을 기재했으며, 그 사이의 모든 호가 빠짐없이 데이터베이스화된 것은 아니다.

둘째, 동일한 신문이 중간에 명칭이 바뀌는 경우 이를 하나의 콘텐츠로 구축한 경우도 있고 별도의 콘텐츠로 분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기관지인 『경성일보』의 국문 자매지라 할 수 있는 『매일신보』는 경영상의 이유로 『경성일보』로부터 분리되면서 '每日申報'에서 '每日新報'로 제호를 바뀌게 된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3대 민간지이고 여운형이 운영하던 『조선중앙일보』는 『동명』(東明, 주간, 1922) → 『시대일보』(1924) → 『중외일보』(1926) → 『중앙일보』(1931) → 『조선중앙일보』(1933~1937)라는 일련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⁸⁾

셋째, 국문판, 국한문판, 영문판 3종이 발행되었던 『대한매일신보』처럼 같은 제호의 신문이라도 다양한 판본이 존재할 수 있고, 같은 날짜의 신문이라도 초판과 이후에 발행된 판본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대체로 한 종만을 대상으로 구축하며 신문의 발행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미리 신문의 발행 경위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신문을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했다면 교차검색도 필요하다. 실제로 『대한매일신보』는 대부분 국문판을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국한문판을 이용하려면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중인 『대한매일신보』 원본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

이처럼,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이미지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용에 불편해서 혹은 익숙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신문의 원본에 대한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 실제로 자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바스

28) 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 8 - 만주사변에서 신사참배까지』, 서울: 인물과사상사, 2008, pp. 222~228.

러짐이 심해 넘겨보기도 힘든 신문 자료의 열람 신청은 처리하기가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오래된 자료는 단순히 디지털화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대안 매체를 선택하는데 열람 목적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명확하지 않은 중앙도서관 내 열람불가 기준은 물론, 열람으로 인한 자료의 훼손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⁹⁾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체)

29) 현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규정’은 16조에서 ‘자료대출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열람의 제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 한편 24조에서 ‘자료의 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분실에 대한 변상 책임을 규정했을 뿐이며, 고문헌자료실 내에서 열람이나 복사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자료의 훼손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국내 소장기관이 많지 않은 고문헌자료의 특성상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자료나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의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무의미하다.